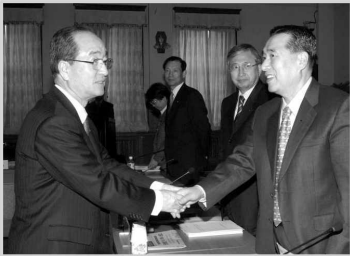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개최

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안' 마련 5729억원 투입·총 62개사업 추진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시행계획 등을 산의 의결했다.

다이나믹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신 성장산업 중심시 건설을 위해 올해 총 5,729억원(국비 1,635억 2,100만원, 지방비 1,657억 2,800만원, 민자 2,436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지역혁신 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 문화, 농·축산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아산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 자동차 부품R&D집적화 센터 건립, 충남 디지털문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등 27개 지역 전략산업 추진에 4,117억 2,000만 원을 매정했다.

특히 공주 유구 자카르티 섬유산업, 보령 미크산업, 아산 밝은샘, 명품화 사업, 시산 유족마을 일류화 사업, 세봉 세계군문화 엑스포 개최, 연기 농촌 테마관광, 청양 청감산 그린투어, 홍성 광천보급 새우



첫 산업, 예산 사과 가공·유통산업, 당진 헤나루싼 육성사업 등 10대 지역연고 산업에 382억 1,3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 밖에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력양성 4개 사업을 위해 593억 1,800만원을,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 7개 사업에 152억 2,000만원, 지역혁신기반 구축 7개 사업에 415억 7,600만원과 기타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에 65억 900만원을 매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충청남도의 혁신의 근간을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